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전북도, 17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회 개최

국가에너지산업의 융복합 중심지로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위상을 선보인다.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시대, 준비된 전북도'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회'가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새만금개발청이 후원하는 이번 홍보·전시회는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홍보관, 태양열·풍력·수소 에너지 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진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친환경을 상징하는 초록색 종이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 듯,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도민의 열의를 담은 퍼포먼

스를 참석자들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 홍보관에서는 새만금에 민간자본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제조기업 및 연구시설 등을 설립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시된다.

신재생에너지 존에서는 태양광·풍력·수소 에너지에 대한 전시관을 운영한다. 각 전시관에는 에너지발전 발전원리와 관련 기업의 제품 15종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태양광 전시관에는 태양광 고효율 모듈, 태양광 모듈 하우스, 태양광 재료 하우스 모형, 수상태양광 모형, 태양광 접속반 등 5개 제품이 전시된다. 도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는 태양광 하우스 등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풍력 전시관에는 풍력 블레이드 모형, 서남해 풍력단지 해상 변전소 모형, 풍력 터빈 모형 등 3개 제품이 전시되며 수소 전시관에는 수소자동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부품 등 7종이 전시된다. 특히, 수소자동차 완제품과 더불어 수소자동차 작동원

리를 볼 수 있는 모형이 전시되어 관람객이 쉽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내 기업이 생산하고 실제 수소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수소저장용기도 확인할 수 있어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에너지 전시관에는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의 작동원리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Q&A를 게시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회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태양광 풍차 조립하기, 태양광 헬리콥터 조립하기, 태양열 조리기 체험하기, 풍력 에너지 하우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공연, 페이스페인팅 및 캘리그래피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이번 홍보·전시회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빵카페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갑질 경영 조사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본부 관계자들과 7일 전주시 천년누리 전주빵카페 본점 앞에서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빵' 직장 갑질 노조 위해 처벌! 관계기관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맛과 멋의 고장으로 미식여행 떠나요”

전북도, 군산항 연계 중국관광객 작년동기 대비 64% 늘어

전북도는 중화권, 구미권, 동남아, 일본 등 대륙·국가별 세분화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해 국제관광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군산항을 이용한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식 및 계절여행상품을 통해 구미권 및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전라북도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항 이용 중국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중국 청소년교류단 4,980여명(9월말 기준)이 전북에서 숙박을 하며 다양한 체험과 관광지를 방문했다. 올해부터 군산항 이용 여행상품은 기존 전주한옥마을 여행상품에서 군산, 익산, 임실, 남원, 무주 등 다양한 관광지

로에서 최대 4박까지 체류하는 여행 상품으로 운영이 되었다. 군산항을 이용한 중국방문객은 26만 2,415명(2019. 1월~9월까지)으로 작년 동기 대비 64%(2018. 1월~9월 16만458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북의 우수한 먹거리를 활용한 미식여행상품인 '글로벌관광육성 상품'과 온라인여행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맛집과 체험을 중심으로 한 '전북 삼색삼미' 여행상품을 비롯한 시군 음식체험 여행상품을 통해 1,727명(2019. 1월~9월말 까지)이 전북을 방문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이트를 통해 2019년 여름부터 운영 중인 전주, 완주여행 당일과 1박 2일 상품으로 11회 110여명

(2019. 8월~9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고, 올 11월 말까지 총 55회 운영해 600여명이 전북을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전북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까지 가을 단풍을 연계한 여행상품으로 대만(5,824명), 홍콩(2,770명), 싱가포르(915명), 미국(631명), 말레이시아(249명), 인도네시아(332명) 등 1만천여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북도를 찾을 예정이다.

또한, 진안마이산 여행상품의 경우 대만과 홍콩 단체관광객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218대 버스가 예약되는 등 되어 있다고 진안마이산 관광 관련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국제관광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세정분야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쾌거

전북도는 7일 오후 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도(세정과)가 제출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적극적 세제지원으로 위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다!'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사례 발굴 확산을 통한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하

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678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가,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 2차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전북도는 최종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사례 중 지방세 분야는 전북도가 유일하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월 전북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

우수로 선정되어 참가한 것으로 전북에서 제출한 29건 중 유일하게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2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청을 적극 요구하여 지난 1월부터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게 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의 역사와 문화 배우는 전북학도민강좌 성료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와 전주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기 도민강좌와 전북의 역사와 문화가 7일 마무리된다.

이번 강좌는 전북학의 개념, 백제로만 알려졌던 전북에 고구려의 흔적과 가야의 실체, 전북의 3·1운동, 전주 및 군산의 창의 도시 소개 등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이 강좌를 통해 전북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도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1기 도민강좌는 △전북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도민과 공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북 내의 고구려와 가야의 존재 확인 △전북인의 자긍심 고취 및 새로운 전라도 정신 창출의

원동력 제공 등을 강조하여 도민의 자존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많은 도민의 관심과 호응 아래 강좌가 진행됐고, 마지막 강좌 후에는 수료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다섯 강좌 중 세 강좌 이상 이수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김진성 기자

‘함께할 여성운동, 세계의 중심으로’

전북 여성대회 성료... 여성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도 20개 단체·14개 시군 여성단체 참여 화합한마당 진행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19 제21회 전북여성대회'가 7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을 비롯해 임암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및 도내 20개 여성단체와 14개 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단체기립장, 유공자 시상, 대화사,

축사, 특강, 화합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 무형문화재 제2호로 흥부가 전수자인 김민숙 명창이 식전 공연 무대에 올라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지역발전과 여성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에 이어 참석자 전원 '함께할 여성운동, 세계의 중심으로!'를 외치는 퍼포먼스가 연출됐다. 이날 특강을 맡은 이복실 (전)여성

가족부 차관은 '세상을 변화 시키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이 시대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독립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며 "많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역할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전북도가 여성들의 당당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스피치. 면접. 시낭송. 웃음치료 (1,2월 방학특강)

44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스피치, 면접, 연설, 웅변, 웃음치료 등을 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바랍니다. 스피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	성인반, 주말반, 개인지도반
정	중, 고등반, 초등, 유치반(차량운행)
구	취업면접반(개인지도)
분	회화 인사말, 선거연설 개인지도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목과전임 담당교수 역임
- 전북대, 우석대, 전주교육대, 군산대
- 과학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전북 최초 스피치1호 지도자
- 기관, 단체특강 600여회
- KBS TV, MBC TV, JTV 출연자
- 대학 평생교육원(지역별 2020년 1학기 모집도 합니다)
- 전주, 완주, 진안(전주에서)
- 남원, 장수, 순창지역(남원에서)
- 군산, 부안지역(군산에서)
- 김제, 완주지역(전주에서)
- 익산지역(익산에서)
- 정읍, 고창지역(정읍에서)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부설)
(사)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지부 (부설)
한국스피치·면접·시낭송 아카데미

위치 : 금암동 백제직업전문학교 옆 삼거리 5층
전화 : (063) 285-6676, 231-6669 (주, 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